

중국에서 일본인의 적대 행위

박선영*

일러두기

1. 본고는 中華民國國民政府外交部, 『中日問題之真相: 參與國聯調查團中國代表提出之29種說帖(1932년 4월~8월)』(白皮書第 26號 1933년 3월)(中國史學叢書 續編, 臺灣學生書局, 臺北, 1975년 초판, 1985년 재판, 총 638쪽) 제 13호의 내용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2. 중화민국 연호를 사용한 곳은 서력으로 수정하였다.
예) 중화민국 21년은 1932년

제13호 동북, 상해, 천진 이외 각지에서 일본인의 도발적 적대행위에 관한 진술

1. 범위

일본이 동북3성을 점령한 사실 및 상해 사건, 천진 사건에 대한 별도의 진술을 조사위원회에 교부한 것 외 중국의 각 요지의 항구에서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는 아래에 서술하였다.

* 포항공과대학교

한구(漢口)

2. 일본교포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무한(武漢) 당국

호북(湖北)성 한구(漢口)시 정부, 무한경비사령부의 선후 보고에 따르면 무한 인민은 일본교포에 대해 시종 평화적인 태도를 취하였다고 한다. 한구(漢口) 당국에서는 오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밀하게 방비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교포에게 특별한 보호를 가했다. 때문에 일본조차지 부근 및 일본교포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어떤 지방에서든지 인민들이 회의를 열거나 학생들이 시위하는 등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이런 지방의 부근 지점에 군경을 빈틈없이 배치시켜 일본교민들을 보호하는데 더 한층 주의를 돌렸으며 모든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였다. 일본이 병력으로 중국의 많은 지방을 침략한 것에 대해 매우 격분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3. 일본인이 시비 거는 상황

중국당국에서는 치안질서를 유지하려고 힘을 다했으나 중국어를 잘하는 일본교포 및 일본군인, 낭인들은 수시로 호북(湖北)성 내에 들어가서 군사비밀을 정탐 하였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서 군경들은 그 기관의 장관에게 명확히 보고하였으나 장관은 여전히 어떻게 하더라도 일본인에 대해서는 보호를 가해야 된다고 명령하였다. 그것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

다. ① 작년 10월 10일 아침 일본 육군 무관 삼강(森岡)은 경비원 2명과 함께 중국의 긴옷을 입고 평한(平漢)철도 및 대지문(大智門) 강안의 두 개 역전의 상황을 시찰하였다. 오후에는 작은 기선을 타고 무악(武岳)철도 서가봉(許家棚)에 가서 그 일대를 시찰하였다. ② 장강(長江)여관 주인의 보고에 의하면, 1931년 10월 22일 저녁 일본인 2명이 중국의 긴옷을 입고 여관에서 함께 투숙하였는데 모두 중국어를 할 줄 안다고 하였다. 한 사람은 자신이 복건(福建)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이 절강(浙江)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후에 일본인이라는 것이 발각된 후 여관을 떠났다고 한다. ③ 그 해 10월 23일 저녁 갑자기 양장과 학생복을 입은 일본인 두 사람이 한구(漢口) 신시장(유희장)에 와서 그 지방의 헌병에게 군사상황을 염탐하다가 그들의 목적이 밝혀지자 다른 곳으로 떠났다. 이상 2개의 안건은 모두 무한(武漢) 경비사령이 일본영사에게 제지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였다. ④ 작년 11월 14일 오후 1시경, 유사한 일본 군관 2명이 큰 모터보트를 몰고 교구(橋口)까지 왔다. 그들은 각 부두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렀으며 손에 종지와 펜을 들고 있었는데 그 곳에서 지세를 측량하여 그리는 것 같았다. 이 사건에 대해 무한(武漢) 경비사령부에서는 구두로 항의를 하였다.

일본인은 중국인에게 구실을 붙여 도전하려고 하였다. 차나 배를 타고는 노임을 주지 않고 상품을 구매하고는 값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상인에게 진 채무를 갚지 않았다. 중국당국은 중국인의 보고를 받은 후 관계자들에게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으라고 명령하였다. ① 작년 11월 15일 점심 일본 조차지의 경비 한 명이 중국 조차지 평화가(平和街) 청역리구(淸驛里口)에서 인력거부를 구타하고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 중국경찰이 있는 힘을 다해 탄압하여 군중을 해산시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② 한구(漢口)의 20여 개의 일본 양행(洋行)들은 상업이 쇠퇴함으로 인해 작년부터 휴업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상인에게 빌린 돈은 전부 상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상인들은 거대한 손실을 입었다. 채

권자가 일본의 주관 부문들을 통제하였으나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다. ③ 작년 가을부터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일본인들이 중국의 긴 옷을 입고 도로에서 차 샅을 주지 않는 사소한 일들로 중국인에게 시비를 거는 일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이런 일본인들은 대다수가 총을 가졌으며 흉악한 짓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작년 10월 26일 일본상사 태안(泰安) 방적공장은 자동으로 공사를 중지하였다. 일본영사관에서는 공장 측의 의견만 듣고 중국관청에 서류를 보냈는데 어조가 매우 위협적이어서 그 지방의 지방관들은 부득불 공장 유지비를 주는 수밖에 없었으며 병사를 파견하여 방적공장을 보호하였다. 일본교포가 공장을 나설 때는 병사를 파견하여 보호하게 하였다.

4. 지방의 치안 파괴를 기도하여 전쟁을 준비한 일본

9·18 심양(瀋陽) 사건이 발생한 후 일본이 한구로 파견한 군함은 7~8척이나 되었으며 수시로 탐조등으로 강 근처를 순시하였다. 육전대(陸戰隊) 경비대 및 의무대는 총 1,500여 명으로 모두 무장준비를 하고 대포, 보총 기관총, 비행기, 철갑차 등 신식무기도 있었다. 또한 남소로(南小路) 및 대정가(大正街)에 모래를 넣은 푸대로 보루를 20여 개나 만들었으며 또한 각 중요한 지점 및 일본인의 주택 위에 기관총 및 기타 무기를 설치하였다. 심지어 경계선을 벗어나 흥원가(興元街) 도로중심에서 6국 묘지로부터 부두일대까지 전선망을 설치하여 모든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경계선을 벗어나 방어시설을 하는데 대하여 일본영사에게 서면으로 항의하였다. 또한 일본인은 종종 야간에 큰 적을 만난 듯이 육해군 군사연습을 하였기에 주민들이 공포 속에서 떨었다. 일본 조차지에 거주하거나 이 조차지를 통과하는 중국인에 대해서는 무단 검사를 하였

다. 일본인이 거리에서 중국인을 구타하여도 일본경찰들이 제지하지 않는 등의 일은 실로 너무나 많다. 예를 들어 작년 12월 15일 일본 조차지에서 금주를 개방하였는데 일본해군, 육군 병사 및 낭인들은 술 취한 것을 구실로 중국인을 모욕하는 사건도 많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일본경찰은 방관만 할 뿐 제지하지 않았다.

5. 서로 다른 중국과 일본의 태도

위에 사실에 근거하여 한구(漢口)의 중국관청이 일본인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특별한 보호를 하였으나 일본인은 시종 구실을 대어 시비 걸어서 일을 더욱 확대하려는 태도를 알 수 있다.

청도(靑島)

6. 평화를 유지한 청도(靑島) 당국

일본교포는 중국의 각 곳에 산거하는데 그 중에 불량한 사람들도 많다. 특히 소위 국수회(國粹會) 중에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청도의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시정부에서는 시당부회(市黨部會)와 당부(黨部) 및 세관 당국과 함께 그 지방의 일본 교포들을 있는 힘껏 보호하려 하였다. 또한 일본영사에게 성의를 피력하여 공동으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두 나라 인민사이에 오해가 일어나는 것을 피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시정부는 비록 노력을 다해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일본인은 여전히 도발적인 태도를 고치지 않았다.

7. 일본인이 구실을 붙여 도발한 사건에 대한 기술

청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갑) 1931년 10월 28일 청도의 일본교민은 거류민 대회를 거행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① 소동을 일으켜 확대정책을 실시한다. ② 일본이 산둥(山東)성에서의 권리를 확충한다. ③ 동북3성에 대처했던 수단으로 산둥(山東)을 대처한다. ④ 일본영사관의 지휘하에서 일본의 의용대(義勇隊)와 부상회(扶桑會)는 일치된 행동을 취한다. ⑤ 밀령을 내려 일본영사관 및 일본교포가 거주하고 있는 40여 곳을 일본인의 안전구역으로 정한다.

(을) 1931년 11월 2일 태산로(秦山路) 1호에 일본 국수회(國粹會) 회원 2명이 거처한 곳에서 사제폭탄을 만들다가 폭발하여 사망하였다. 중국 경찰들이 현장에 가서 검사한 결과 유황 4근, 건전병(乾電瓶) 3개를 발견하였다. 일본영사관에서는 사제 폭탄을 만든 사실에 대해서는 부득불 승인하였으나 여전히 이런 사건들을 없던 것으로 치려고 하였으나 중국 경찰은 동의하지 않았다.

(병) 1931년 11월 13일 일본은 청도시 정부의 보고에 의거하여 중국인 왕진창(王振昌)을 체포하였다. 자백에 의하면 어떤 이름 모르는 일본인의 지시를 받고 동진(東鎭) 상가 부근에 폭탄을 놓았다 한다. 또한 일본군함 구모호(球磨號)의 해병들은 1대로 집결해서 강기슭에 올랐으며 지도를 가지고 군사탐정을 하였다고 한다.

(정) 1932년 1월 12일 청도의 일본교포는 국민일보에 이곽색(李霍索)이 일본황제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꾸민데 대한 사실이 기재된 신문에 지사(志士)로 표기되었다는 구실로 민중을 모아 이 신문사의 물건들을 모두 파괴하였다. 그들은 시당부(市黨部)까지 벌떼같이 몰려가 당부(黨部) 건물을 모두 불태워 버렸다. 동시에 일본의 해군, 육군 500~600명이 비행기를

타고 상륙하였다. 당시 시정부에서는 청도 주재 일본영사관에 항의하였으나 일본영사관에서는 오히려 이 신문사의 사장이 사과할 것과 10일 동안 출판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시정부에서는 한편으로 육전대(陸戰隊) 철수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일본교포가 시당부를 불태운 사건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일본영사에 조회하여 사과, 범인 체포, 배상, 보종의 4가지 사항을 요구하였다. 더불어 일본영사가 청도 주재 일본영사에게 시정부가 요청한 바의 여러 가지를 즉시 처리하고 이어 일본영사에게 청도 시의회를 불태운 것을 보고할 것을 전보로 명령하도록 요청하였다. 그 원인은 시정부에서 국민일보에 기재된 내용의 검사를 소홀히 하였고 무성의하게 배일 단체의 책동을 저지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영사가 시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라는 전령이 없었기 때문이다. 비록 외교부에서 격렬한 어조로 반박하였으나 여전히 회답이 없었다.

복주(福州)

8. 복주의 일본영사 및 일본해군의 도발

1932년 1월 2일 오후 복주 각 학교의 학생들은 서호(西湖) 공원에서 대회를 열었으며 국민들은 중일 마찰에 대하여 마땅히 일치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그 때 당시 복주 일본영사 및 일본군함 북상호(北上號)의 정부 함장은 간편복을 입고 개회지점으로 가 대중 면전에서 포스터를 찢음으로 분노의 태도를 표현하였다. 이로 인해 소수의 분노한 학생들과 작은 충돌이 발생하여 일본영사 등은 복주 당국에 항의하였으며 항일활동 취소를 요구하였다. 더불어 5일 오전 10시 전까지 모든 반일 표어를 찢지 않으면 일본 측에서 생각하는 필요한 행동을 취하겠다고

하였다. 외교부에서는 복건(福建)성 정부의 보고에 의거하여 즉시 1월 3일 일본영사에게 조회하여 일본영사가 시비를 거는데 대해 항의하였다. 또한 이 영사에게 이 후의 행동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중해 달라고 하였으며 이런 원인 때문에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면 일본측에서 완전히 책임져야 한다고 성명하였다.

9. 일본측의 뜻에 얽매어 평화적 수단으로 일을 해결한 지방당국

1월 3일 저녁 복주에 거주하고 있는 수호삼웅(水戶參雄) 및 그의 부인이 갑자기 암살 당했으며 범인은 도망갔다. 성정부에서는 즉시 명령을 내려 범인을 체포하게 하였으며, 성위원회의 임지연(林知淵)을 파견하여 일본영사에게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조사 처리 하겠다고 성명하였다. 일본측에서는 이 기회를 틈타 이 성내의 모든 일본을 반대하는 조직을 봉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와 비슷한 성질의 단체를 재조직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또한 성 정부측에서 일본을 반대하는 단체를 취소하는데 대해 망설이는 등의 태도가 발각되면 일본 총영사는 필요한 때에 자유로운 행동을 취한다고 성명 하였다. 뒤이어 그들은 일본군함 6척을 몰고 들어와 시위하였다.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복건성 정부대표와 일본영사는 상의한 후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군경을 명령하여 직책을 다해 일을 처리하며 일본측에 위문하는데 대해 승낙하고 모든 포스터를 없애고 일본을 반대하는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고 하였다. 명령을 내려 소동을 일으킨 자를 체포하게 하였으며 수호(水戶)를 암살한 안건에 대하여 성정부에서는 군경장교와 함께 대표를 일본영사관에 파견하여 사

과하도록 하였으며 수호(水戶)가족에게 구제금 5만위엔(元)을 주었다. 또한 군경을 더 파견하여 일본인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범인을 잡는 자에게는 상을 준다고 한 것 외에 범인을 체포하는 것에 대해 책임지고 처리하고 치안을 유지하는데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10. 동방일보 안건

이 신문 정간과 주필 징계라는 두 가지 안건은 이미 해결되었으나 일본인은 여전히 다방면으로 구실을 붙여 도발하였으며 사태를 확대시키려 하였다. 1월 9일 복주 동방일보는 신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왜적(倭賊) 두 글자를 실었다. 일본은 영사관에 이 신문사의 출판을 영원히 금지하고 주필을 체포하며 형법에 따라 가장 엄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성 정부에서는 사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신문사에 며칠 동안 출판을 금지할 것을 명령하고 교섭하고 있었을 때, 21일 이 신문에 조선인 이봉창(李奉昌)이 일본황제의 암살을 도모한 소식 중 나라의 원수를 갚는다는 뜻의 의미를 가진 자객의 말을 밝혔다. 일본영사는 또 이것을 구실로 항의하였으며 이 신문사의 주필이 형법 제60조 제3항 및 제132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체포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 이 신문사의 출판을 영구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4시간 내에 원만한 회답을 주지 않으면 필요한 수단을 취한다고 하였다. 성 정부는 당장 긴급회의를 열어 사태의 심각성을 악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오로지 일본영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경찰서는 이 신문사의 출판을 금지하고 주필을 법원에 이송시켜 심판토록 하였다.

11. 각 안건의 성질

위에 설명한 첫 번째 안건에서 나는 일본영사가 군함 함장과 함께 초대받지도 않고 중국인 애국대회에 갔다는 것을 알아야 했다. 회의 중에서의 표현을 보면 일본측에서 이미 동북3성 전부를 침략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이기 때문에 일본인을 동정해서는 안 된다.

제2안에 관해 일본측은 해군이 시위하였으나 이 안건이 아직 정찰중이어서 죄상이 성립되지 않았다. 더욱이 듣기로 범인이 반드시 중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성정부를 압박하여 책임지고 구제금을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 점에 대해 반드시 주의하여야 한다.

남경(南京)

12. 남경(南京)을 폭격한 일본(1932년 2월 1일)

남경을 폭격한 사실에 관한 경찰청 청장의 확실한 보고는 다음과 같다.

1932년 2월 1일 오후 11시 하관(下關)에 정박한 일본 군함은 갑자기 대포를 8번이나 쏘아 사자산(獅子山) 하관(下關)역, 북극각(北極閣), 청동산(靑凍山), 막부산(幕府山)을 폭격하였다. 동시에 또 기관총과 보총도 한 밤중까지 쏘았다. 중국측에서는 시종 반격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외교부가 일본 영사관에 조회하여 강렬하게 항의하였다. 그리고 일본이 이유 없이 남경을 폭격하는 것은 국제연합회의 결의와 국제연합 맹약을 위배 할 뿐만 아니라 이미 매우 긴장된 상태를 확대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해 중국정부에서 요구할 권리를 보류한다고 성명하였다. 일본 외교부에서 받은 일본공사의 보고를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듣기

로는 하관에 정박한 일본 포함은 1일 오후 11시에 중국 정규군의 공격을 받았다. 일본 함대 사관은 사자산(獅子山) 포대에서 대포를 3번 쏘아 일본해군이 반격을 하였는데 중국측에서 침묵하자 일본해군도 즉시 폭격을 정지하고 정당한 요구권을 제출할 권리를 보류한다는 성명을 하였다. 중국정부에서는 남경성 외에 정규적인 군대가 주둔하지 않았고 포대에 대포를 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등으로 위에서 말하는 각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한편 일본이 남경을 폭격한 사실을 국제연합 중국 대표기관에 전보로 통지하여 행정원과 외국의 각 영사관에 보고하였으며 그 날에 일본외교부는 또 일본영사관과 조회하여 일본영사관 관원 및 교민이 탄 일본 선박 운양완(雲陽丸)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하였다. 중국 정규군이 하관에서 참호를 구축하는 것은 실로 적대적 행위가 있는 것이기에 즉시 저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외교부에서는 중국당국에서 스스로 준비 작업을 정지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일본영사에게 회답하여야 할 것이다.

13. 일본교포가 남경을 떠난 후의 폭격

조사에 의하면 남경 일본교포는 1월 30일부터 점차 떠나기 시작하였다. 2월 1일에 남경은 일본 포대의 무단 폭격을 당했는데, 이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 1일 이후부터는 자주 일본군함 5~7척이 남경의 강 유역을 순시하였는데, 운송 요지를 방해하여 끊임없이 중국수도의 안전을 위협하여 사태를 확장하려는 것이 틀림없다.

산두(汕頭)

14. 산두(汕頭)에서 일본인의 도발

1월 14일 산두 주재 일본영사는 산두 신문사의 논평 중에서 모 조선인이 일본황제를 암살을 도모하였는데 뜻을 이루지 못한 사건이 기재된 것을 구실로 일본황제를 모욕하는 뜻이 있다고 하여 산두 시장에게 항의하였다. 이 신문사의 주필을 처벌하고 명령을 내려 출판을 금지하며 지방관에게 사과하고 이후로 이와 유사한 일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산두 시장은 각 신문사에 이후 신문을 출판할 때 신중 하라고 권고하였지만 일본영사 및 일본 군함 함장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고 1월 29일 및 30일 일본 연안 경비 군함을 파견하여 공포를 쏘아 시위하였으며 탐조등으로 각 요지를 탐조하였다. 여산(旅汕)의 일본교포들은 모두 먼저 비행기를 타고 철수하였다.

15. 외교부의 항의(1932년 2월 1일)

외교부는 이 사건에 대해 광둥(廣東)성 정부 산두 시장의 전보를 받은 후 즉시 일본영사관에 항의하였으며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해군의 자유행동을 저지할 것을 일본정부에게 전달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한편 산두 시장에게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여 사건을 확장시키지 않도록 전보를 발송하였다. 뒤이어 산두 시장이 일본측과 상의하여 신문사 주필이 일본영사에게 사과하도록 하였고 일본영사는 만족해 하였다. 더불어 일본군함의 행동은 다만 연습하는 것에 지날 뿐이지 다른 의도가

없다고 하여 2월 1일 쌍방이 문서를 교환하였다. 산두에 머무르고 있는 일본군함 2척 외에 나머지는 모두 물러갔다. 산두시 정부는 3일에 일본 영사가 보낸 일본 연안 경비 군함 1척이 항구에 들어올 것이라는 문서를 받고 즉시 일본영사에게 오해가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기타의 군함이 항구에 들어오는 것을 저지해달라고 서면으로 보고를 보내 요청하였다. 일본영사가 요청에 따라 처리함에 따라 산두 사건은 이로써 해결되었다.

진강(鎭江)

16. 진강(鎭江)에서 일본 해군의 위협 : 중국측의 평화적 태도

1932년 2월 14일 오후 4시경 진강의 일본 군함 망월호(望月號)의 사관 2명이 통역 전구(田口)를 데리고 시장에 물건 구입하러 갔다 돌아오는 도중에 일청(日淸)회사의 부두에서 민중들에게 구타 당했다. 이 소식을 듣고 수도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영사는 군함을 파견하여 시위하게 하였다. 외교부에서는 이런 행동이 의미 없이 사건을 확대시키므로 힘을 다해 저지하였다. 한편 강소(江蘇)성 정부 주석에게 전보를 보내어 왕(汪) 교섭원에게 진상을 조사하고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하였다. 16일에 다시 전보를 받았는데, 14일 저녁 일본군함 함장이 2월 15일 오후 6시까지 원만한 회답을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일본을 배척하는 모든 포스터를 없앤다.
- (2) 부상자에게 일본화폐 3000원의 배상금을 준다.
- (3) 성정부 당국은 반드시 일본군함에 가서 이 일을 해결한다.
- (4) 범인을 체포하고 엄격하게 처벌한다.

(5) 경찰서의 책임 관리를 처벌한다.

성정부에서 토론한 후 제 1, 2 두 항에 대해 경찰서 서장은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망월호(望月號) 함장의 위협 하에 14일 저녁에 승인하였으므로 책임을 그다지 추궁하지 않았다. 일본인이 또 구실을 대어 진강에 해군을 파견하여 시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과하고 범인을 체포하여 엄격히 처벌하며 경찰서 책임 관리 처분 요구를 그대로 처리하였다. 진강은 수륙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소주(蘇州)

17. 소주(蘇州)를 습격한 일본 비행기

소주는 상해와 약 50마일 떨어져 있다. 소주 주재 일본영사, 관원 및 일본교민들은 2월 2일전에 중국 당국에 의해 호송되어 안전하게 소주를 떠났다. 그러나 2월 17일 일본비행기는 3차례나 소주를 향해 날아왔다. 조사해보니 첫 번째는 일본비행기 6대였는데 오전 7시 반에 도착하여 소주상공을 3바퀴나 돌았다. 뒤이어 11시 반에 또 2개 분대로 나누어 소주에 도착하여 5바퀴나 돌았다. 오후 4시에 일본비행기 5대가 소주에 도착하여 2바퀴 돌았다. 18일 오전 9시에 일본 비행기 6대가 소주에 날아와서 기관총으로 새로 지은 비행장을 공격하였다. 같은 날 오후 4시 반 비행기 6대가 소주 상공을 한 바퀴 돌았다. 19일 오전 9시 일본 비행기 3대가 소주에 와서 정찰하였고, 오후 4시 반 또 한 바퀴 돌았다. 20일, 21일에 모두 소주를 한번 날았다. 22일 오후 4시 반에 일본비행기 6대가 소주를 향해 날아왔는데 그 때 마침 중국 항공서의 미국 국적을 가진 교

련관 소특(蕭特) 중령이 다른 지방에서 비행기를 타고 비행장으로 날아 올 때 일본비행기 6대에 의해 포위공격을 당하여 소특(蕭特) 중령이 탄 비행기가 추락하여 그는 바로 사망하였다. 23일 오전 8시 일본비행기 6대가 태호(太湖)로부터 소주로 날아왔다. 다른 3대의 비행기는 강음(江陰)에서 소주로 날아와 비행장에 폭탄을 15개나 투하하여 비행장과 중국비행기 3대가 파괴되었다. 25일 오후 4시에 비행기 3대가 소주를 한 바퀴 주회하였고, 29일 오후 4시 50분에 비행기 5대가 또 소주 상공을 비행하면서 폭탄 8개를 투하하였다.

18. 습격에 관한 외교부의 성명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일본비행기가 소주를 습격한 사실에 관하여 외교부에서는 2월 22일 일본공사에게 심각하게 항의하며 일본비행기를 제지시킬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다시는 이런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날 외교부는 영미공사에게 조회하여 소주의 일본교민의 생명 재산이 일본비행기의 행동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마땅히 일본 정부에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명하였다. 그러나 일본공사는 2월 26일의 답장에서 일본비행기가 소주에 날아간 것은 중국비행기 및 군대의 공격에 자위적 수단을 취한 것으로서 모든 책임은 마땅히 중국에서 져야 한다고 하였다.

항주(杭州)

19. 항주(杭州)를 습격한 일본 비행기

항주(杭州) 주재 일본 영사 및 관원 그리고 일본교포들은 2월 6일 이전에 중국의 호송으로 안전하게 항주를 떠났다. 항주는 절강(折江)성에 있으며 상해의 서남쪽에 있다. 2월 26일 오전 7시에 폭탄을 가진 일본 비행기가 6대, 추격기 9대 총 15대가 갑자기 현교(覓橋) 비행장으로 날아왔으며 중량 폭탄을 다수를 투하하였다. 동시에 추격기는 기관총으로 사격하여 중국 비행기는 자위를 위해 저항하였다. 일본 폭격기는 우선 먼저 도망갔으나 추격기는 중국 비행기와 20여 분 동안 전투한 후 물러갔다. 반시간 후 일본비행기 3대는 또 다시 항주로 날아와 폭탄을 투하하고 도망갔다. 중국측의 교련기(教練機) 3대, 화물운송기 1대, 주택 여러 채가 모두 파괴되었다. 또한 중국 석(石) 대장의 오른팔과 조(趙) 비행사의 가슴에 중상을 입었다. 그날 오후 1시에 일본 추격기 9대가 다시 항주로 날아와 몇 바퀴나 상공을 돌다가 돌아갔다. 3시에 일본 추격기 6대, 폭격기 11대는 현교(覓橋)비행장 상공으로 날아와 반시간이나 배회하였다. 또한 폭탄 20여 개를 투하하여 부근의 많은 민간 주택이 파괴되었다. 29일 오후 1시에 일본비행기 3대가 또 날아와 폭탄 10여 개를 투하하였다.

20. 감포(澗浦) 해염(海鹽)을 순항한 일본 군함

상술한 사건 외에 같은 달 26일 오전 일본 군함 2척은 사포(乍浦) 해변을 순항하였다. 오후 3시 반에 또 1척이 왔는데 감포(澗浦) 해염(海鹽)으로 갔는데, 일본비행기 3대가 호위하였다. 29일 아침에 일본 연안 경비 군

함 3척이 항주만(杭州灣)으로 들어와 사포 해면에 정박하였다.²⁾ 그 중의 한 척은 그 날에 남쪽으로 향하여 떠났다.

21. 외교부의 항의

2월 26일 일본이 비행기 및 기관총으로 항주시를 폭격하고 일본군함 3척이 해염(海鹽) 해면에 정박하고 각 군함에서 비행기 6대를 파견한 사실에 대하여 외교부에서는 2월 27일 일본영사에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며 이 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제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체의 손실을 보상할 권리 보유에 대해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회답이 없다.

22. 개론

상술한 각 안건으로부터 볼 수 있듯이 일본인은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 도발하거나 사실을 확대시키려 했음을 밝혀낼 수 있다. 이유 없이 중국의 수도 및 교전 지점과 멀리 떨어져있는 소주와 항주 두 곳을 폭격한다는 것은 완전히 까닭 없는 행동이다. 많은 무고한 인민과 논밭과 가옥이(田廬) 모두 희생되고 파괴되었다. 일본은 이런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 도발함으로써 중국측의 적대행위를 불러일으켜 이로써 행동을 확대하려고 하였다.

www.kci.go.kr

2) 원문에는 “停泊乍浦○浦洋面”이라 되어 있어 중간 글자 하나가 정확하지 않는데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澈浦로 보인다. 그러나 정확한 것을 확인할 수 없어 澈浦 부분에 대해서는 번역하지 않았다 : 옮긴이.